

# 유학생 유치의 일자리 효과와 교육서비스 수출을 위한 과제

허재준\*

## I.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본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의 중요성

299달러짜리 iPhone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국제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탐구한 Dedrick(2009)에 의하면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은 전체 생산원가 중 미미한 부분인 1~2%,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은 약 14%, 고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은 최대 25%,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공급하고 브랜드 네임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은 나머지 수입을 차지한다고 한다. 한편 iPhone 생산에 지출되는 임금총액은 미국에 70%, 미국 외에 30%가 배분됨으로써 부가가치는 미국에 집중된다고 한다. iPhone으로 인해 생긴 전체 일자리 약 41,000개 중 미국에서 약 14,000개가 생기고 나머지는 미국 밖에서 생겼는데, 미국 밖에서 생기는 일자리 중 중국에서 생긴 일자리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sup>1)</sup> 혁신제품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높은 단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에 진출하면서 일자리 효과는 제한적으로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iPhone의 예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LCD,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교역재 생산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지만 기업이 생산부문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예전보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창출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표 1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1) 한편 중국은 직물산업 최대 수출국이지만 2009년 수출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1천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섬유업이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자동화 설비 등으로 생산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 성장률 및 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

		1981~90	1991~2000	2001~09
성장률	전 체	9.7	6.6	3.9
	제조업	12.3	8.7	5.5
	서비스업	8.4	6.2	3.6
취업자수 증가율	전 체	2.8	1.6	1.2
	제조업	5.3	-1.2	-1.0
	서비스업	5.3	4.4	2.5
생산성 증가율	전 체	6.9	5.0	2.7
	제조업	7.0	9.9	6.4
	서비스업	3.1	1.8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가장 최근의 경기변동기인 2003-07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은 연평균 7.4%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이 0.62% 증가했다(표 2 참조). 공급된 노동의 질이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서비스직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은 고학력노동에 친화적이다(표 3 참조). 서비스업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표 2〉 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탄력성, 단위성장률당 취업자수 증분

(단위 : %, 만 명)

		1984~07	1984~02	2003~07	1984~09	2008~09
성장률	전 체	7.0	7.7	4.3	6.6	1.2
	제조업	9.4	10.0	7.4	8.7	0.6
	서비스업	6.3	7.0	3.4	5.9	1.8
취업자수 증가율	전 체	2.0	2.3	1.1	1.9	0.2
	제조업	1.1	1.6	-0.7	0.9	-2.1
	서비스업	4.1	4.6	2.1	3.9	1.7
고용탄력성	전 체	0.29	0.30	0.26	0.29	0.13
	제조업	0.12	0.16	-0.09	0.10	-3.29
	서비스업	0.65	0.66	0.62	0.66	0.95
성장률 1%당 취업자수 증분	전 체	5.3	5.2	5.8	5.3	3.0
	제조업	0.4	0.5	-0.4	0.3	-0.2
	서비스업	6.4	6.0	9.0	6.6	14.9

주 : 한국경제는 1984~2007년간 6번의 경기순환기를 겪었고 가장 최근의 경기변동주기는 2003~07년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3〉 산업부문 학력별·성별 취업유발계수(2007)

(단위: 명/10억 원, %)

	취업유발 인원	학력별			성 별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	남성	여성
전산업	13.9 (100.0)	4.6 (33.1)	5.8 (41.7)	3.5 (25.2)	8.2 (59.0)	5.7 (41.0)
제조업	9.2 (100.0)	2.7 (29.3)	4.2 (45.7)	2.3 (25.0)	5.9 (64.1)	3.3 (35.9)
서비스업	18.1 (100.0)	7.0 (38.7)	7.4 (40.9)	3.7 (20.4)	9.6 (53.0)	8.5 (47.0)

주: ( )안은 취업유발인원 대비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2009).

1990년대 후반 이래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증가하고 각국은 유학생 유치에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유학생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유입은 교육서비스의 수출에 해당한다. 전통적 유학생 유치국인 미국,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직접적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성장과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내소비를 진작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의 한국 상품·서비스 수요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관리·서비스가 수반될 경우 국가브랜드의 제고에도 기여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일환으로도 기능하여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수출은 풍부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교육서비스업이 지니는 일자리 정책 차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교육서비스의 국제화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학생 유치의 일자리 효과와 함께 교육서비스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교육서비스업의 GDP, 고용, 국제수지

### 1. 교육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및 GDP 비중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지만 교육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 고용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표 4〉 교육서비스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단위 : %)

	$\frac{\text{교육서비스업 고용}}{\text{서비스업 고용}}$	$\frac{\text{교육서비스업 GDP}}{\text{서비스업 GDP}}$
한국	11.0 (2008)	10.9 (2008)
영국	10.5 (2007)	10.2 (2008)
미국	10.2 (2008)	6.5 (2007)
일본	4.4 (2005)	4.9 (2005)

로 높다. 2008년 기준으로 고용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고용의 11.0%, GDP 비중은 전체 서비스업 GDP의 10.9%를 점하고 있어 영국과 미국보다 높다(표 4 참조).

## 2. 서비스 교역과 교육서비스 국제수지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비교역재로 여겨져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서비스 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세계 교역의 20%를 점하고 있다. 그 증가율도 최근 10년 동안 OECD 전체로는 연평균 6.9%, EU는 연평균 8.5%, 미국은 연평균 6.5%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비중은 최근 10년간 전체 무역의 16.5%를 점하고 있어 서비스가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동 기간에 서비스 교역은 연평균 8.1% 증가(수출 7.2%, 수입 9.1%)하여 서비스 무역증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유학비용 지급과 수입으로 계산할 때 교육서비스 수입액(40.0억 달러)은 2009년 현재 수출액(5,500만 달러)의 72.8배에 이를 정도로 역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0~09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수입은 연평균 15.9% 증가한 반면, 수출은 9.7% 증가에 그쳤다(표 5 참조).

〈표 5〉 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교역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서비스			유학서비스		
	수출	수입	수출+수입	수출	수입	수출+수입
한국	7.2	9.1	8.2	9.7	15.9	15.8
미국	5.4	8.1	6.5	NA	NA	NA
EU	9.0	8.0	8.5	NA	NA	NA
OECD	7.1	6.8	6.9	NA	NA	NA

주 : 한국은 2000~09년 기준, 미국과 OECD는 1996~2005년 기준, EU는 1997~2005년 기준임.

### Ⅲ.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영향 요인

#### 1. 세계 유학생 규모와 한국내 유학생 비중

2003년에 수행된 호주 IDP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교육 세계 수요는 2000년 1억 명에서 2025년 2.5억 명으로 150% 증가하고 수요증가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44개국 출신의 유학생수에 대한 예측치를 소득, 인구변화, 고등교육 진학률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유학생 수요를 추정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고등교육 유학생에 대한 세계 수요는 200만 명 미만에서 2025년 720만 명으로 증가하고, 그 중 고등교육 유학생에 대한 세계 수요는 200만 명 미만에서 2025년 72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2025년까지 아시아는 국제 수요의 70%를 차지할 전망이다.

2008년 현재 전세계 등록 유학생 약 330만 명 중 OECD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수는 약 310만 명으로 92.7%, MESDCs(Main English Speaking Destination Countries)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수는 약 140만 명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유학생수는 4.5만 명으로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 2. 고등교육의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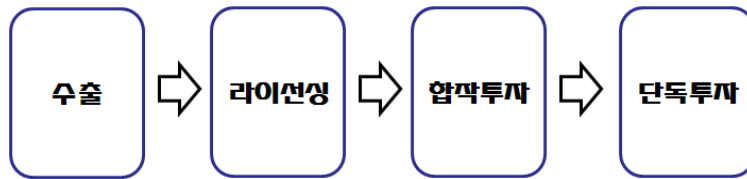
기업의 국제화 과정은 상품 수출→라이선싱 제공과 로열티 징구→합작투자→단독투자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유형분류를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상품 수출은 유학생 유치, 라이선싱은 프랜차이징, 합자투자는 분교·센터·과정 설립시의 파트너십 기반 투자, 단독투자는 현지 교육기관이나 자본과의 제휴 없이 단독으로 분교를 설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하지만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기업의 국제화와는 달리 유학생, 프랜차이징, 합작투자, 단독투자의 단계를 거쳐 전개되기보다는 각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출에 해당하는 해외유학이 급속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공급자 및 프로그램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수출국의 교육정책, 수출국 교육기관의 전략, 수입국의 규제가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에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2) MESDCs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요 유학생 유치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가리킨다.

[그림 1] 기업의 국제화 과정



<표 5> 교육서비스의 국제화 형태

유학생 유치	프랜차이즈: 1+2, 2+1, 3+0 형태로 학위 제공	합작투자 분교·센터·과정 설립	단독투자 분교설립
세계 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 MESDCs</li> <li>수입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li> <li>국내 각 대학들이 외국대 학과 MOU 통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 MESDCs</li> <li>수입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li> <li>한국은 불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 유럽, 미국</li> <li>수입국: 한국, 싱가포르, New South Wales 캠퍼스</li> <li>개도국들이 잘 허용하고 있지 않아 사례가 드물</li> </ul>

화의 급속한 진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개도국의 국내 고등 교육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존재하였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영미권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화함에 따라 MESDCs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3. 고등교육서비스 국제화의 배경과 영향 요인

MESDCs 대학들의 세계화는 교육서비스 수출국과 수입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MESDCs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와 대학에 대한 실질보조금 축소에 대응하여 대학 재정사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금이 규제받지 않고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는 유학생의 비중이 4%인 반면, 거의 모든 대학이 공립인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각각 13%와 14%, 대부분 사립대학인 호주는 18%에 달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내국인 풀타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액은 1인당 11,293달러(1980년)에서 7,367달러로 감소(2002년)하여 1991년에 정부보조금이 대학예산의 73%를 차지하였지만 2002년에는 42%로 하락했다. 호주 교육기관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8%에서 2004년 기준 41%로 감소했다.

2005년 Warwick대학의 동문과 교수로 구성된 대학평의회가 싱가포르 캠퍼스에 5억 2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부결시킨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대리인

문제, 대학평판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수의 서구 대학의 교수와 대학동문들은 아직까지 대학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징 형태의 고등교육 국제화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유학생이 감소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캠퍼스 설립은 국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수입국 정부의 정책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중국의 예처럼 단독투자 분교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합작투자는 불허하는 반면, 단독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 IV. 각국의 교육서비스 국제화 사례

###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교육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인식하여 2000년에 싱가포르의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Teo Chee Hean은 싱가포르를 ‘동양의 보스턴’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계획은 싱가포르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데에서 더 나아가 유학생 흡수를 통해 전략적으로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시장의 교육허브로 육성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싱가포르는 INSEAD, MIT, Stanford University, Chicago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Technische Universiteit Eindhoven 등 10개의 세계 정상급 대학들을 유치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등록금 부담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학생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지난 3년간 3개 대학에 15,400만 달러 그리고 5개 폴리테크닉에 6,900만 달러를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유학생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MOE의 Tuition Grant 의무를 지는데, 즉 졸업후 3년간 싱가포르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은 유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2008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는 국내학생에 비하여 1.1배에서 1.5배로 인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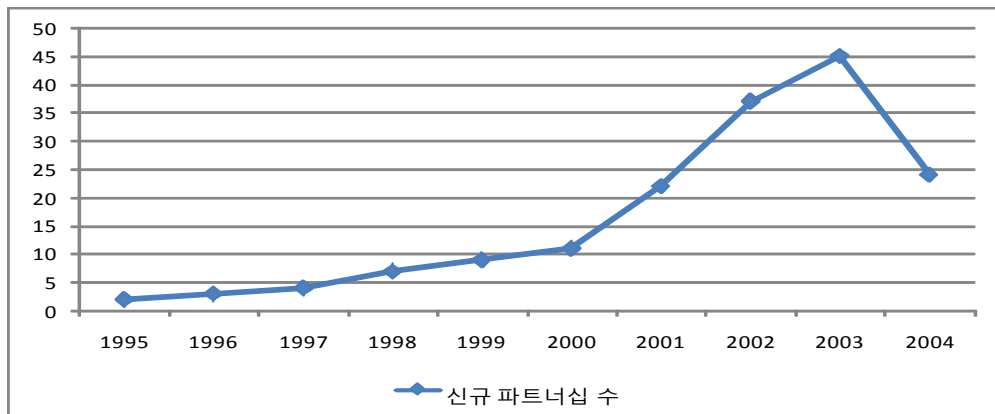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내국인 및 외국인 소유 교육기관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전체 교육기관의 65%가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다. 외국인 소유 교육기관은 1990년대 이후 81.8%에 해당하는 117개교가 설립되어 2001년 현재 외국인 소유 교육기관은 싱가포르 교육기관의 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3.5퍼센트의 고용을 차지하고 있다.

## 2. 중국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은 “학교운영관련 중국-해외협력 임시 규정”(1995년), “학교운영 관련 중국-해외협력 규정”(2003년) 등을 도입했다. 1995년 규정은 외국 교육기관이 중국의 교육기관과 반드시 합작을 해야 하고, 이윤추구를 금하며, 중국 시민들이 교육기관 운영에 1/2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승인 없이 학비를 인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중국의 의무교육과 정부에 의해 특별히 공급되는 교육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합작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03년의 규정에서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이윤추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해외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은 2개(1995년)에서 745개(2004년)로 증가하였고, 그 중 169개는 해외(홍콩 포함)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 6월 현재 승인된 합작교육기관은 668개이며, 총 51,893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2] 중국내 합작교육기관 신규 설립 추이



## V. 결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만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만 계산하더라도 고등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1만 명당 국내 일자리 효과는 연간 94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업료 납부가 갖는 일자리 효과도 46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유학생 가족 및 친지의 한국방문 효과나 장기적 승수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학생 1만 명 유치시 연간 1,400명 이상에 이르는 점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수출은 일자리에 대한



기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교육서비스 수출을 위한 적극적 전략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서비스업은 타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 경기안정화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 한국어 학습지원, 졸업후의 일정기간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고 세계 정상급 대학의 합작투자 허용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단독투자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기반도 조성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서비스 수출 및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KLI**

### <참고문헌>

- Dedrick, Jason(2009), “Who benefits when you buy an iPhone?” October 28.
- Findlay, Christopher and William Tierney(eds.)(2010), *Globalization and Tertiary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The Changing Nature of a Dynamic Market*, Singapore: World Scientific.
- Healey, Nigel M.(2008), “Is higher education really ‘internationalising’?,” *Higher Education* 55, pp.333-355.
- Mandel, Michael(2008), “How Many U.S. Jobs Does the Apple iPod Create?” December 12, [http://www.businessweek.com/the\\_thread/economicsunbound/archives/2008/12/how\\_many\\_us\\_job.html](http://www.businessweek.com/the_thread/economicsunbound/archives/2008/12/how_many_us_job.html)